

##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9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건강: 무더위가 계속 되는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5. 성경통독: 제10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중(30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7/24(수) 8시 Zoom 기도회(골로새서)
7. 감사: 오늘 점심은 송순란 집사님께서 준비. \*강단미화: 임현선 집사님께서 드리심.
8. **차세대 사역**: 차세대 사역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봉헌 (\$ 1,951.00)

-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진원 유금자,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동윤 유형란,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오근희,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 특 별(혹해 선교):** 조병기.

##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29호 2024년 7월 21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 엘림 찬양 단
- 합심기도 Prayer ..... 다 같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 같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조민연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 인 도 자
- 찬 양 Anthem ..... 찬 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욥 기 42:1-6** ..... 다 같 이
- 설 교 Sermon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조병우 목사
- 봉헌송 Hymn .....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 찬송가 213장 (4절) .....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 이 번 주 섬 김 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민연 권사	조병우 목사	송순란 집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우영자 권사	박종님 전도사	우영자 권사	박종님 전도사



###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애가에서 우리는 마음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3:18).

그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패배와 고립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힘에 겹고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희망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22절)는 것을 깨달은 데서 왔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긍휼이 무궁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22-23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날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심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In the book of Lamentations, we understood that the heart can be punctured. “My splendor is gone,” Jeremiah said, “and all that I had hoped from the Lord” (3:18).

His situation was far different from yours and mine. He had preached God’s judgment, and he saw Jerusalem defeated. The splendor was gone because he felt defeated, isolated, and abandoned by God. But that’s not the end of his story. Light shined through. Jeremiah, burdened and broken, stammered out “I have hope” – hope that comes from realizing that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v. 22). And here is just what we need to remember when the splendor is gone: God’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vv. 22-23). Even in our darkest days, God’s great faithfulness shines through.